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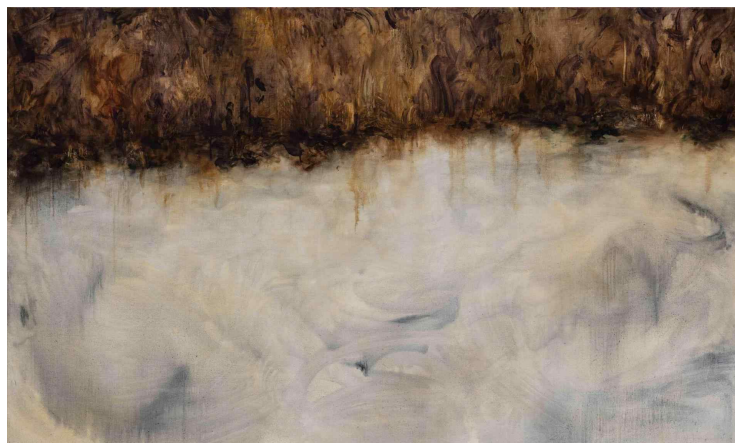
아트경기 x 믹
작가·평론가 1:1 매칭 비평

고 우 리

“고우리, 자연 언어에 대한 탐사적 수행”

고우리 작가의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불안한’ 감정은 그의 작업을 읽는 하나의 알리바이이다. 또 하나의 알리바이는 그의 직접적인 신체 수행이 캔버스로 투사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감정은 어떤 정확한 형태로 매개될 수 있는 것일까. 동시에 신체는 작품과의 접촉을 활성화하며 작품에 인장을 남김으로써 그 사이에서 촉지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일까. 우선 그의 감정은 작업으로 해소되며 작업 안에서 응결된다. 곧 어떤 감정은 작업을 마주한 작가의 신체적인 차원으로써 찾아든다면, 또는 촉발된다면, 이는 또 다른 신체의 양상 속에 분포한다. 여기서 다다른 ‘어떤’ 형태는 그의 감정 양태를 조절하며 제어하는 기술(技術)적 양식에 따른 것으로, 그의 감정을 그 자체로 매개한다기보다는 그와 작품 사이를 매개하며 그러한 감정에 대한 양태가 아니라 그러한 감정에 대한 기술(記述)로 분화한다.

고우리는 신체와 지지체의 접지를 통해 대상에 대한 재현이 아니라 대상을 인지하고 기술하는 과정을 구성한다. 그에게 무언가를 그린다는 관념은 무언가를 만진다는 뚜렷한 관념을 안는다. 지지체는 하나의 사물로 치환되며 신체는 수행의 과정을 거기에 수여한다. 결과적으로 작품이라는 인지적 대상은 하나의 덩어리 또는 하나의 입면에 가까운 듯 보이는데, 이는 손이 붓보다 예측할 수 없는 형태를 만든다거나 또는 섬세한 작동을 가져가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의 수행이 전적으로 자의적이거나 우연에 기반한 것이 아님을 전제할 채 이야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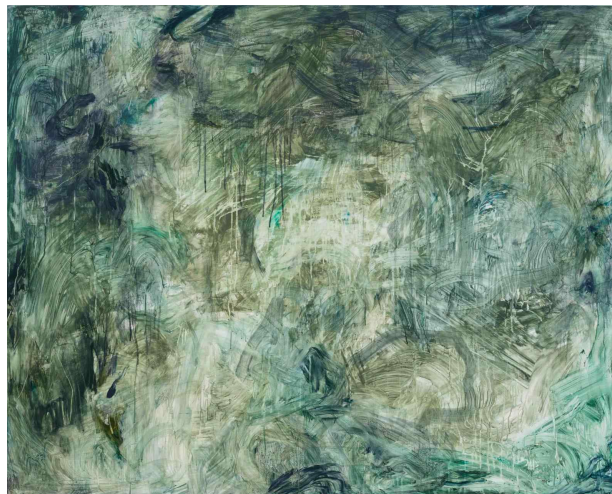
고우리, 왜 계속 흔들릴까, 97x162.2cm, Oil on canvas, 2022

어떤 투박함은 어떤 정교함과 관계 맺는다. 또는 어떤 우연성은 어떤 총체성과 관계 맺는다. 고우리의 작업에서 총체성과 정교함은 상관관계를 지니며 우연성과 투박함 역시 그러하다. 이는 하나의 형태를 향해 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의 표면을 형상화한다(총체성). 거기에는 하나의 형태가 비친다. 여기에는 수많은 우연이 육박하는데, 신체의 형상, 곧 손의 표지 또는 얼룩이 자리한다.

그것은 투박한 접촉면을 구성하지만, 하나의 총체적 표면 아래 두께와 깊이의 차이를 통해 정교함을 형성한다. 이러한 정교함은 손이라는 직접적인 신체의 매개가 붓보다 더 나은 정도의 조작과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지의 여지를 다루는 것과는 다르다.

손은 신체로부터의 포착인 동시에 신체의 포착이지만, 이는 신체를 또 하나의 붓으로 만드는 기술적 훈련을 거친 이후에 출현하는 것이다. 곧 손은 붓을 환상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붓을 만드는 수행이 ‘이전의’ 손에 따른다. 여기서 손은 직접적인 것이라기보다 까다로운 것이며, 투명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실재인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매체이자 질료로서 여전히 기능한다는 점에서, 손은 투박하지만 투박함을 다루는 실재이며, 바로 그러한 지점에서 정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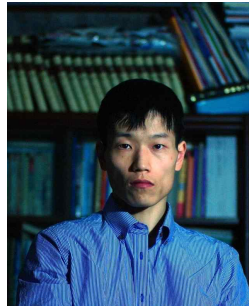
〈Uncatchable, Sentimental〉 (2022) 연작의 경우, 제목이 갖는 감정을 포착할 수 없음의 문학적 알레고리는 사실 정위되거나 포화되거나 안정화되지 않는 화면의 운동성 자체가 연유하는 매체적 수행 방식을 직접 지시한다. 투박한 손과 화면이 ‘응결’되지 않으며 나아가는 전개는 그것의 정교함을 그 자체가 아니라 획들의 직접적인 또는 구도적인 맞물림(“손을 사용하는 행위의 중첩을 통해 형태를 흐트러트리며 선율과 파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이나 그것을 지우는 행위를 통해 연결 짓는다. 여기서 작업을 그리고 지워내는 건 작업을 빼는 게 아니라 작업을 더하는 방식이 된다. 그것은 이전의 것을 고스란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분절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정을 유예한 투박한 표면이 의도적으로 주어지고 이를 지워내며 남는 건 지워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과 지워낸 ‘자국’과의 혼합이다. 이러한 자국은 젓소가 탈락되어 원래의 천으로 회귀하며 재료 본연의 인덱스가 표시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질감이 드디어 의미를 얻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고우리, Uncatchable, Sentimental, Movement 02, 130.3x162.2cm, Acrylic and oil on canva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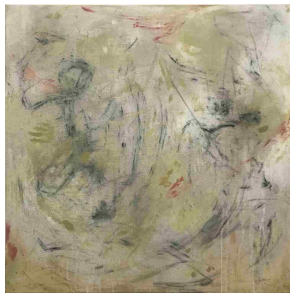
어떤 전체로서의 형상으로서, 고우리 작가의 작업은 자리한다. 이는 지시 대상이 명확한 분절을 구성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시각적 표지가 아니라 캔버스를 비롯하여 재료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두고 그것을 손으로 재합성하는 과정을 통해 그것이 출현한다. 거기에는 작가 자체의 합성이 있다. 이를 작가의 ‘관계 속 불안한 감정’으로 다시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으며, 또 다른 관계가 그 안에서 펼쳐진다.

글 김민관 / 예술비평



(현) 아트신 편집장.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에 걸쳐 동시대 현장의 다양한 예술에 관해 리뷰/비평을 생산하며 문화예술 전반에 관심을 두고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미학적 접근과 철학적 통찰력, 예술의 사회적 역할의 제고 등 여러 지점에서 예술을 보는 시선을 확장하고자 한다. 저서로 『퍼포먼스 아트의 다층적 시선』(2011)이 있다.

작가 고우리 Ko, Woori b.1989 (2022 아트경기 선정작가)



따뜻한 껍데기의 정체, 97×97cm, Charcoal and acrylic on canvas, 2020

고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 발생한 불안정한 감정의 기류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관심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신체성을 포함한 회화 물성 실험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2015년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에 선정되어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에서 <잡히지 않는 것들> 개인전을 시작으로, 2018-2019 수원문화재단 유망예술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2019년 울산의 북구예술창작소에 입주작가로 선정되었다. 2021년엔 박수근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양구에서 활동하였고, 2022년 수원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사업소개 아트경기x믹 작가·평론가 1:1 매칭 비평

2022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아트경기x믹 작가·평론가 1:1 매칭 비평]은 아트경기 협력사 MEEK의 기획으로 진행, 2022년에 선정된 아트경기 작가와 다학제적 장르를 대표하는 멘토를 매칭하여 비평을 진행한다. 총 8인의 아트경기 작가와 3인의 전문가는 9월부터 11월 동안 1:1 면담을 통해 작품에 대한 깊은 논의를 나누었고 그 결과 총 8편의 비평글이 작성되었다. 8편의 비평글은 작가와 협력사 믹, 전문 평론가가 만들어낸 협력의 결과물이며, 아트경기 작가의 다양한 해석과 장르 확장의 지점을 제공한다.